



세계 부흥을 위한 전략적 동역

©아세르 인트레이터, 2008년 6월 17일

우리는 마지막 때 예슈아의 재림으로 이어질 큰 부흥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사도행전 2:17 (골 2:28)

또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위해 전략적 동역 관계들을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대부흥과 전략적 동역 관계에 참여하기 전,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저희는 ‘대위임’을 받아 저희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사도행전 1:8

메시아닉 유대인인 저희는 저희 뒤편 유대 문화를 재건하는 것일 뿐, 세계 복음화를 위한 대위임과는 무관하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올해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 티쿰 사역 팀은 일본, 중국, 인도, 아프리카 동-서 유럽, 터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사역자들을 파송해 왔습니다. (물론 저희의 ‘제일’ 사명인 예루살렘과 유대, 즉 이스라엘 내의 지역적 복음화, 제자화, 그리고 회중 개척 사역에 부가적으로 말입니다.) 여기엔 더 넓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후 6:11, 7:2). 그리고 기도와 믿음, 관용, 그리고 관리를 필요로 합니다 (롬 10:15).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선택 받았다는 것이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함 (창 12:3)임을 깨달아야만 하며, 이 축복은 곧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홀로 대위임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협력과 팀워크가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전략적 동역 관계를 이뤄가길 원합니다. 한 예로 IHOP (마이크 비클), 더 콜 (루 앵글, 체 안) 그리고 God TV (튀튀와 웬디 앨렉)의 네트워크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달 '더 콜- 예루살렘' 집회에서 이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처럼 거대하고 성공적인 사역 단체들이 저희와 왜 동역하려 할지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세계 부흥과 복음화가 예수아의 재림에 이르는 것임을 이해한다고 믿습니다. 또 재림이 거대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임도 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도적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전략적 동역 관계의 또 다른 예는, 최근에 저희가 함께 했던 전 유럽 어글로 *Aglow* 컨퍼런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럽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왔지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유럽 전역에 있는 어글로우 지부들 가운데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봅니다. 제인 헨슨을 비롯한 어글로우 지도층에서도 유럽의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있는 반유대적 뿌리 때문에 유럽 성도들이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힘을 모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저와 유발이 스페인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것입니다. 이 자리엔 유럽 22 개국의 어글로우 대표들이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갈망한 것은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나라들 가운데 부흥이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온 유럽으로 복음이 퍼진 것은 한 모임 때문이었습니다 (행 16). 루디아가 인도한 여인들의 작은 기도 모임이 샤울(바울)이 인도한 이스라엘의 작은 사도적 무리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 본을 따라, 저희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매들을 통하여 오늘날 유럽 전역에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또 하나의 전략적 연합은 '실크 로드'와 '이사야 19- 대로 *Highways*'입니다. 지난 2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국의 지하 교회엔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중국 성도들은 스스로 '백 투 예루살렘 *Back to Jerusalem*'이라 칭하는 환상을 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아시아 전체 (특히 무슬림과 힌두, 불교도들에게)에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엔 복음이 중동과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중국 지하 교회의 지도자들인 천과 윈 형제를 만나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환상이 수년간 정제되어 이제는 많은 이들이 '실크 로드'라고 부르는 것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중국으로부터 중동까지 역사적 무역로를 따라 자연스레 뻗어가리라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 선교사들도 이 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 인물 중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사역하는 사도 김삼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김 선교사와 중앙 아시아 12 개국에서 온 그의 동역자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하엘 케렘 *Mikhael Kerem* 도 그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미하엘은 '이사야 19- 대로' 비전의 중심축입니다 (사 19:23-25). 이사야 19 장 말씀은 중동 아랍 국가들에 부흥과 더불어 이스라엘과의 화해가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흥과 화해는 아시리아와 이집트 간에, 이스라엘을 관통하는 영적 '대로'를 통해야 가능합니다. 이 대로는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진실된 성도들의 협력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 혹은 '대로'는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무슬림 통치국 내의

참 그리스도인들 간에 전략적 관계를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실크 로드가 이사야 19 장의 대로 비전과 연결될 때, 복음의 커다란 고리가 이스라엘이라는 결승선에 이를 준비가 될 것입니다.

중동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이사야 19 장**의 환상은 결국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세계 복음 전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사야 2 장**의 환상과 연결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으로 가서 올라가자.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사야 2:2-3)

세계 복음화의 위임을 완수하기 위해, 주께서는 전세계 메시아의 몸을 이끄는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곳에서 저희의 비전, 제 2의 오순절 사건을 전합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 2 장**에서 예루살렘에 임한 그 불이 다시 내려올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세계로 뻗어갈 부흥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다.”) 같은 불이지만 훨씬 규모가 큰 것이지요.

저희는 사도행전 1 장의 대위임이 완성되기를, 그리고 사도행전 2 장의 불이 열방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로서, 저희는 이 마지막 때 세계 부흥을 가져올 남녀 종들과의 전략적 연합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번역: 고병현

Shaul Syunghyun Go